



보도자료

담당자 최우석 연구위원(3775-9016)

보도 2026. 7. 9.(목) 15:00부터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매수 총 7매

보험연구원, 「생산적 금융 시대,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」 세미나 개최

- “생산적 금융, 정책과 산업 현실의 간극 메워 새로운 기회로”
 - “생산적 금융, 개념검증부터 M&A까지 벤처 전 단계 걸친 생태계 구축 필요”
 - “보험산업 생산적 금융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 기반 정비 필요”
- 보험연구원(원장 김헌수)은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7월 9일(목) 오후 2시 『생산적 금융 시대,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세미나는 ‘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’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이 직면한 시의성 높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.
 - 특히 생산적 금융을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, 보험산업 자본규제와 자본관리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,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였다.
- 김헌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정책의 방향과 산업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우는 것을 이번 세미나의 핵심 과제”로 제시했다. 그는 “실물경제의 장기투자자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커졌지만,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생산적 부문 투자는 지급여력 관리 부담을 한층 키울 수 있다”라고 지적했다. 다만 김 원장은 이러한 전환이 “보험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”라고 강조하며, 보험연구원이 정교

한 연구로 정부와 산업에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‘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.

○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자봉 은행법학회장(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)이 ‘생산적 금융의 의미와 과제’를 발표하며,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‘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과 자본관리 방안’을 주제로 발표했다.

- 첫 발표를 맡은 김자봉 은행법학회장(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)은 생산적 금융을 지난 20여 년간 하락해 온 한국의 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기술선도성장을 지원·견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. 그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회수(Exit)에 이르는 각 성장 단계에 금융기관과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‘혁신금융 생태계’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.

- 이어 그동안 한국은 해외 기술을 사다 쓰는 모방 성장에 의존해 혁신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역량이 미흡했다고 진단하며, R&D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성 평가 체계의 발전과 함께 개념검증 지원기관 설립, M&A 세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과제로 제시했다.

-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대표적 장기자본 공급자로서, 인내가 필요한 첨단·벤처·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짚었다.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산적 자산이 위험이 커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, 지급여력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- 이어 최 위원은 생산적 금융의 실제 위험을 반영하도록 지급여력제도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, 보험회사가 이 생태계의 장기자금 공급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본관리와 함께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○ 발표 이후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식 금융감독원 팀장,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,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,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해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.

첨부: 세미나 프로그램 및 발표자료 요약문

첨부 1) 세미나 프로그램

- 프로그램 -	
시 간	내 용
14:00 ~ 14:10	(환영사) 김현수 (보험연구원 원장)
14:10 ~ 14:50	(발표 1) 생산적 금융의 의미와 과제 김자봉 (은행법학회 회장,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	(발표 2)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과 자본관리 방안 최우석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14:50 ~ 15:00	Break Time
15:00 ~ 16:00	(패널토론) 좌 장 : 김상봉 (한성대학교 교수) 토 론 : 김동식 (금융감독원 팀장), 유제상 (생명보험협회 부장), 윤태일 (KB손해 보험 부장), 진성익 (금융위원회 사무관)

[별첨 2] 발표자료 요약문

- (주제발표 1)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‘생산적 금융의 의미와 과제’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벤처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
 - (생산적 금융 의미) 생산적 금융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한국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기술선도성장을 지원·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한국 경제는 민주주의 정치경제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지만,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말 0~1% 수준까지 떨어짐
 - 성장 둔화와 함께 상위 10% 계층이 전체 자산의 60%를 보유하는 등 소득·자산 불균형도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함
 - 이에 생산적 금융은 기술선도성장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, 함께 추진되는 포용금융은 소득·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‘모두의 성장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됨
 - (혁신금융 생태계) 생산적 금융은 조셉 슈페터의 혁신금융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, 혁신금융의 생태계는 벤처기업 성장의 전 단계에 걸친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를 특징으로 함
 -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는 극초기(Pre-seed) - 시드(Seed) - 시리즈(Series A~C) - 스케일업(Scale-up) - 회수(Exit)로 구분됨
 - 혁신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성장 단계에 걸쳐 벤처캐피털, 은행, 연기금, 보험, 회계법인, 정부 등이 횡과 종으로 연결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
 - (국내 문제점) 한국 경제는 해외 원천기술을 구매해 활용하는 모방 성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, 혁신기업 성장에 있어 상업성 평가 체계는 발전했지만, 기술성 평가 체계는 미흡함
 - (생산적 금융 과제)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 원천기술을 창출하는 R&D 투자를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 체계의 발전이 필수적임

- 기술성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개념검증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설립, ②R&D 플랫폼 구축, ③경업금지조항(No-compete Clause) 완화, ④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, ⑤M&A 세제 개선 ⑥투자성 대출·예금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

○ 생산적 금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념검증, 벤처캐피탈(VC), 벤처대출, M&A 회수 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며, 보험회사는 이 생태계에 장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임

- 다만 보험회사 참여의 전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지급여력 신뢰이며, 제 2 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와 자본관리 과제를 다룸

○ (주제발표 2)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‘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과 자본관리 방안’이라는 주제로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본관리 방안을 제안함

- (보험산업의 역할과 문제점) 보험산업은 장기자본 공급자로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으나, 생산적 부문 투자는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자본관리 부담을 높일 수 있음

- 보험산업은 수취한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하고 장기 보험부채를 부담하므로 인내 자본이 필요한 첨단·벤처·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으며, 생산적 부문 투자를 통해 자산·부채관리(ALM)를 위한 장기자산과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

- 생산적 자산은 안전자산 대비 위험성이 높아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, 요구자본 증가로 이어져 지급여력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* 지급여력비율: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(예상치 못한 손실)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측정함

- (제도 개정 방안) 생산적 금융 투자의 실질적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정 방안으로 ① 주식위험액 산출 방식 합리화 방안이 도입되었으며, ② 매칭조정 요건 완화·활성화 방안이 논의됨

- 그 외에 적격 모험자본에 관한 위험·투자관리 요건과 장기보유주식 특례 활용

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가로 논의됨

<지급여력제도 개정 방안>

분류	내용
매칭조정	• 변동금리 자산에 대한 매칭조정 허용
	• 현금흐름의 미스매칭 요건 완화
주식위험액	•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정부의 투자금액 보조에 비례하여 충격수준 경감
	• 장기보유주식 특례 적용 대상에 비상장주식·펀드 포함
	• 적격 벤처투자에 대하여 선진시장 상장주식 충격수준 적용
	• 신재생에너지·Si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기반시설을 적격 인프라 대상으로 인정

* 매칭조정: 특정 자산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,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

* 주식위험액: 주가 급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값으로, 주식유형별로 주식 투자금액에 충격수준을 곱하여 산출함

- (보험산업 과제) 보험산업은 자본관리 효율화, 상품구조 정비, 자산운용 시스템 고도화 등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
 - 파생상품 등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함께,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 매칭이 쉬운 상품 개발·판매하여 안정적 자금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수익성 있는 투자처 발굴을 위한 자산운용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함

< 보험산업 생산적 금융 참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 >

구분	문제점	대응 방안
생산적 부문의 높은 위험성	자산 가치 변동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확대	재정 후순위 보강을 통한 위험 완화
	높은 요구자본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	정부 보조 등 위험완화 요인을 반영한 요구자본 합리화
투자자원 확보	상당 자산 ALM을 위해 국고채 투자 증	매칭조정 요건 완화 및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인 확대 및 가용자본 부담 경감
	저축성·연금 상품 비중 축소로 대규모 투자자원 마련 곤란	생산적 자산과 매칭이 쉬운 상품 개발 및 판매

- 생산적 금융은 특정 정책펀드에 대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기술선도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생태계 구축이며, 보험회사는 이 생태계의 장기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보

협계약자 보호와 지급여력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

- 따라서 생산적 금융 정책은 개념검증·VC·벤처대출·M&A 회수시장 등 생태계 인프라 구축과 함께,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실질 위험에 기반한 자본관리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